



속면도 관리  
슬림테크·보조제 등  
수면케어 시장 확장  
L1



Life

리만코리아  
'제주 클로렐라'로  
소재 국산화  
L2



곡선형 보행로와 수목이 어우러진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 정원 한편에는 책을 읽다 쉬는 모습의 장 줄리앙 작품이 설치돼 자연 속에서 사색과 여유를 즐기는 정원의 콘셉트를 완성했다.

# 예술과 자연이 만든 '명품 풍경'... 진주 품은 정원 거닐다

## 아파트의 미학(美學)

### 래미안 원페를라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서울 방배동의 조용한 주거지 사이로 '래미안 원페를라'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복잡한 도심에서 한 발 물러난 곳에 3개 단지가 자리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한 이곳은 지난해 진행된 청약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 152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천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도심 속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방배초·방일초·서래초 등 여러 학교가 반경 1km 내에 있으며 반포 학원가 접근성도 좋아 교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단지명 '원페를라'를 해석하면 '단 하나의 진주'다. 진주와 같이 희소한 명품 주거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진주(Perla)'를 콘셉트로 고급스러운 조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전통 조경 방식 차경(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주변 풍경을 경관의 소재로 화용하는 기법)을 적용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6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건축 부문에서는 외관 디자인·조경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3단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이 보인다. 작은도서관 앞에 자리한 쉼의 정원으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머무는 곳이다. 곡선형 보행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수목과 수경 요소가 어우러진다. 정원 끝에는 나무 사이사이의 바람결을 담은 2층 티하우스가

학군, 녹지 등 인프라 풍부한 역세권 단지 진주 콘셉트로 자연과 어우러진 조경 조성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조경부문 본상

단지 곳곳에 장 줄리앙 예술작품 전시 도서관 앞 심터엔 수목·수경요소로 꾸며 제주도 옮겨놓은 듯한 현무암·팽나무숲 자연·예술 입체적으로 풀어낸 갤러리로

있다. 원형 구조가 직선적인 건물과 대비를 이루며 부드러운 공간감을 만든다. 정원 콘셉트에 걸맞게 책을 보다 쉬는 모습의 장 줄리앙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책과 자연, 바람이 어우러진 곳에서 사색과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2단지 커뮤니티 시설 앞에는 '펠 라이트 가든'이 조성돼 있다. 차분한 분위기의 휴식 정원이다. 정원의 중심에는 고개를 한참 들어야 할 만큼 커다란 소나무가 자리한다. 수형이 풍성하게 퍼진 소나무는 대단지의 규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소나무를 둘러싼 수경시설은 물줄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설계했다.

'펠 라이트'라는 이름처럼 햇빛이 닿아 반짝이는 물방울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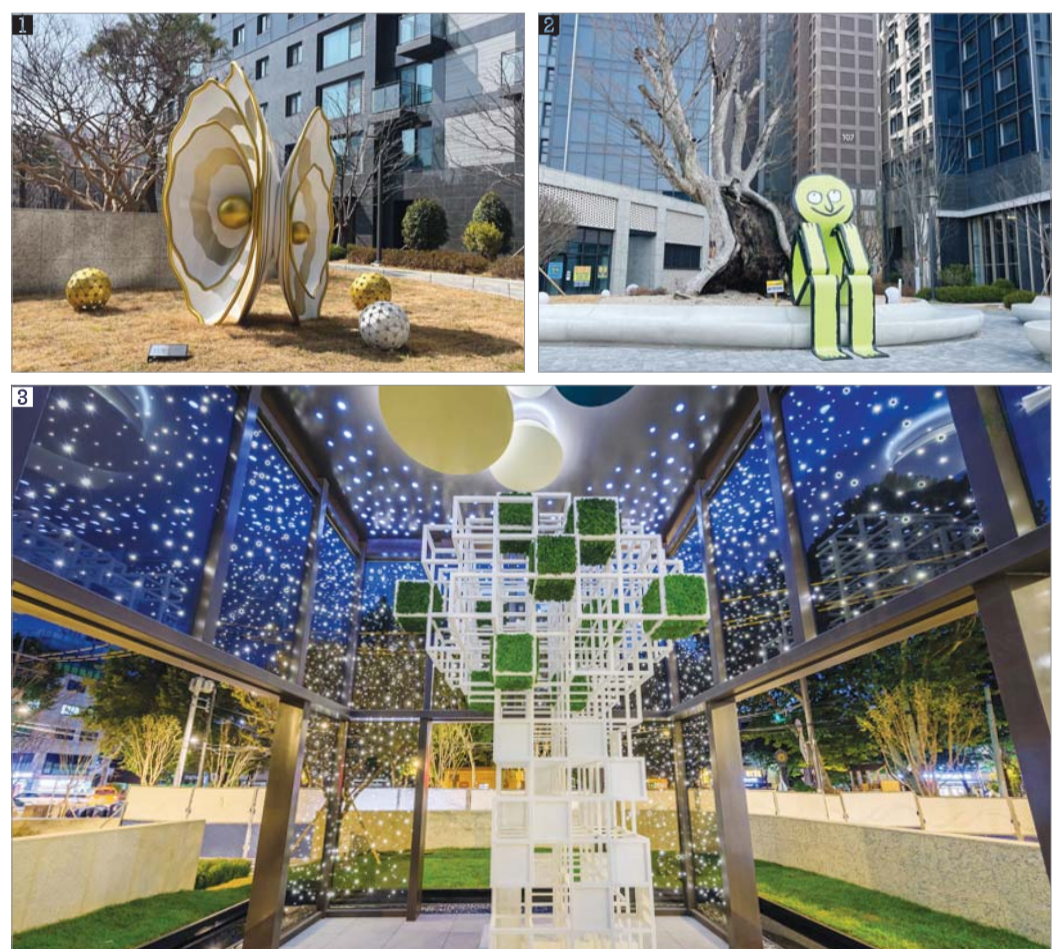
펠 라이트 가든을 지나면 자연의 흐름을 강조한 '블록 스트림 가든'으로 이어진다. 도심 속 계곡을 모티브로 조성한 공간이다. 석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블록형 구조 위로 물이 흐르도록 해 자연스러운 수경 경관을 구현했다.

천천히 단지를 거닐다 보면 제주도를 옮겨놓은 듯한 곳이 나타난다. '풍낭 풍당 안개가 내린 숲'이다. 풍낭은 팽나무를 부르는 제주 방언이다. 바람과 햇살이 스며드는 산책길은 제주에서 온 팽나무가 함께한다. 중앙에는 웅장한 느티나무가 서 있어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 현무암과 자갈, 이끼 식재로 제주도 자연 환경을 구현해 섬의 고요한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단지 한편에는 '네이처 리트리트(Nature Retreat)'공간이 마련돼 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 기존의 식생과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목재 데크와 라운지 체어가 놓인 휴식 공간은 산 속 리조트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래미안 원페를라의 조경 철학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그린 아트 갤러리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진주'라는 콘셉트를 입체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소나무와 조형물, 타워형 티하우스가 어우러지며 단지 한가운데 작은 전시관을 선보인다. 내부는 격자 구조와 식생, 등근 조형물이 결합돼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연출했다.

1단지 출구에는 상징목 느티나무 아래 장 줄리앙의 '페이퍼 피플'이 앉아 있다. 장난스러운 표정의 작품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목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에 여유를 더한다. 페이퍼 피플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단지를 오가는 입주민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1 래미안 원페를라 내 조형물 '자연의 울림' 2 느티나무와 장 줄리앙의 '페이퍼 피플' 3 그린아트갤러리 티하우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슬로 스타터'는 잊어라... '투자 효과' 보는 KT, 개막 4연승 질주 /사진 뉴스시스  
▲마운드에도 '슈퍼 루키' 출격 대기... 박준현·양우진도 실전 대비 담금질

▲굳은 표정의 홍명보 감독, 2연패 후 귀국... "보안할 점 확인했다"  
▲프로농구 KCC, 갈 길 바쁜 SK 잡고 6강 PO '청신호'

▲오수민,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첫날 7언더파 공동 선두  
▲'활동 중단' 타이거 우즈, 2027년 라이더컵 단장도 안 맡는다